

# 국내 환경사 연구 교류의 새로운 방향 모색 ‘환경인문학과 과학기술학’을 중심으로

원주영<sup>1</sup>, 김주희<sup>2</sup>, 박서현<sup>3</sup>, 배상희<sup>4</sup>, 이종민<sup>5</sup>, 전준<sup>6</sup>, 현재환<sup>7</sup>

[<sup>1</sup>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과 / 연구강사, <sup>2</sup>독립연구자, <sup>3</sup>성신여자대학교 창의융합교양대학 / 조교수, <sup>4</sup>서울대학교 과학학과 / 박사과정, <sup>5</sup>국립군산대학교 자율전공학부 / 교수, <sup>6</sup>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대학원 / 조교수, <sup>7</sup>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 부교수]

## 1. 서론

국내 역사학계에서 환경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현대사 연구로 한정하더라도 1970년대 개발독재 시기의 환경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여러 연구를 통해 박정희 정부 내에서 공해와 환경이 어떻게 문제적 대상으로 부상했으며, 어떻게 개발과 보존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는지가 드러나는 상황이다.<sup>1)</sup> 2022년에는 역사학대회의 주제가 ‘환경과 인간’으로 정해지면서 역사학계 내부에서 환경사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sup>2)</sup> 그렇지만 각각의 연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환경사 연구자들 간의 활발한 교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교류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환경사회학과 환경사와 같은 연구 분야가 국내에서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생태환경사학회의 ‘생태환경사세미나’와 같은 읽기 모임이 운영되고는 있지만,<sup>3)</sup> 국내 환경사 커뮤니티의 규모가 작아 학회 간 경계를 넘어서는 더 폭넓은 교류의 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교류 모임이 연구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촉진하는 중요한 장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풀씨연구회 지원사업의 일부로 진행된 ‘환경인문학과 과학기술학’ 모임을 토대로, 환경사 연구자들 간의 교류 모델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모임은 2019년부터 이어져 온 ‘과학기술과 환경의 역사’ 모임을 바탕으로 풀씨연구회의 규정에 맞추어 새롭게 조직된 것이다. ‘과학기술과 환경의 역사’는 군산대학교 자율전공학부의 이종민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의 현재환, 성신여자대학교 창의융합교양대학의 박서현, 서울대학교 과학학과와 배상희,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의학과와 원주영 등 각 대학 소속 교원과 학위 과정 중인 연구자들이 환경사 교류를 목적으로 결성한 네트워크 모임이다. 이 모임은 2020년 초 코로나 발생 이후로 주로 Zoom을 통한 온라인 모임의 형태로 지속되었으며, 이 가운데 주로 현대 한국 과학사를 연구하는 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이 주요 발표자와 참여자로 모임을 주도해 왔다.<sup>4)</sup> 2019년부터 지속되어 온 이 모임은 환경사에 관심을 가진 넓은 의미의 ‘환경학’ 연구자 60여 명 이상의 메일링 리스트를 확보하였으며, 이 리스트에는 사회학, 인류학, 의학사, 환경사회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격월마다 진행되는 모임

1) Jaehwan Hyun, 2023, “Negotiating Conservation and Competition: National Parks and ‘Victory-over-communism’ Diplomacy in South Korea,”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Sep 5, 1-17, <https://doi.org/10.1017/S0007087423000316>; 원주영, 2023, “환경을 위한 개발? - 1970년대 내수면 개발과 한국자연보존협회의 자연보존 운동”, 『역사비평』 145, 154-180; 원주영·현재환, 2024, “『자연보존』을 통해 본 1970년대 자연보존 논의의 변화”, 『생태환경과 역사』 12, 73-115.

2) “제65회 역사학대회”, <https://historykor.re.kr/board/news/article/32833>, (2024년 11월 4일)

3) 예를 들어 한국생태환경사학회에서는 ‘생태환경사세미나’라는 이름의 환경사 연구 읽기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4) <https://cold-ketchup-472.notion.site/8141d26f459f461aa0e0423fab77e294?pvs=4>, (2024년 11월 4일)

일정을 공지하며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표자와 청중이 대부분 과학기술학 연구자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네트워킹 모임 참여자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연구자들 간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원주영, 김주희, 박서현, 배상희, 이종민, 전준, 현재환 등 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은 본 모임을 풀씨연구회 소속 ‘환경인문학과 과학기술학’(이후 환경사모임)으로 새롭게 정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은 환경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매월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환경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 사이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했다.

본 연구그룹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의 모임을 열어 환경사 연구의 최신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국내 환경사 연구 커뮤니티에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환경사 연구의 교류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모임은 대외적인 홍보보다는 기존에 유지해 온 메일링 리스트를 기반으로 홍보를 진행하며, 발표자의 전공과 연구 주제의 다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연구자, 연구 주제, 모임 장소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모임을 진행하지 않았고, 모임 지역을 계속해 변경함으로써 각지에 위치한 연구자들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 2. 본론

### 1) 환경사모임 조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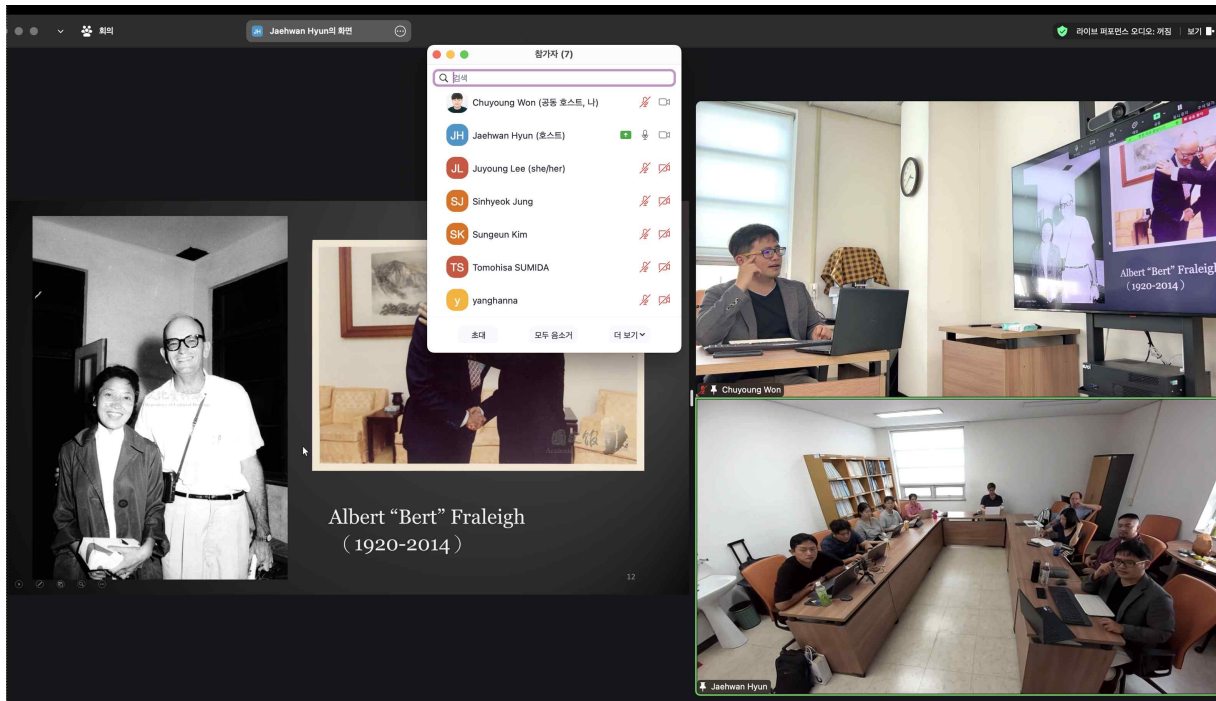
‘환경인문학’이라는 모임의 이름에 걸맞게, 본 환경사모임은 과학기술학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사와 인문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최대한 폭넓은 연구 발표회를 구성하였다. 더불어, 연구의 장이 대학이라는 공간에만 지나치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아래 표에 제시된 것처럼 6월과 10월 모임은 대학 내 강의실이 아닌 공유 오피스를 대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모임 장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대학 외부의 연구자들 또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표 1] 환경인문학과 과학기술학 운영 목록

일시	장소	발표자	발표자 전공	발표제목
4.19	산림과학원 중회의실	이종민 (군산대)	과학기술학, 환경사	자원-환경 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본 미국 산림 정책의 흐름과 영향
		차성은 (산림과학원)	컴퓨터사이 언스	산불확산 예측시스템 소개 및 발전계획
5.17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610	정세권 (경희대)	의학사	“실내공해”와 가정위생 상품의 유행: 1960~70년대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중심으로
6.21	합정역 공유오피스	이소요 (한예중)	예술-과학 사	매립지 도시고형폐기물의 비균질성에 대하여
7.26	가톨릭대 성의교정 유니버스파크 L005	박승만 (가톨릭대)	의학사	현대 한국의 방진 마스크: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 산업보건과 산업의학
		김준수 (한양대)	기술사	1960-80년대 한강 개발과 ‘한강댐’ 구상
8.20	부산대학교 성학관 308호	Kjell Ericson (Kyoto University)	과학사	Pacific Oysters and Transpacific Environmental History
		Yu-Han Huang (University of Tor	과학사	Soil-Cement Brick and Its (Failed) Promises

		onto)		
9.27	전북대 한국과학문 명학연구소	김미숙 (전북대)	인류학	일본 미나마타병 기록을 대하는 두 자료관의 역할
		박진영 (전북대)	환경사회학	이동하는 팽생이모자반과 그를 쫓는 과학
10.30	대전 스파크플로 우	김지영 (공주대)	지리학	국토 자연의 '구멍'과 영역화: 1940-70년대 국토구멍운동,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또한 환경사모임은 연구 주제와 장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미팅을 통해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환경사모임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연구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그 결과 아래 사진과 같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참여한 연구자는 모임마다 약 10명 내외였으며, 온라인으로 참여한 연구자는 약 5명 내외로, 평균적으로 모임마다 12~15명 정도의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이렇게 본 모임은 연구자 간의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이고 폭넓은 학술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림 1] 환경인문학과 과학기술학 모임 예시(8월 20일 부산대학교 모임 + zoom)

## 2) 환경사모임 월별 발표 소개

### (1) 2024년 4월 환경사모임

4월 첫 모임은 최근 1960-70년대 자연보존 운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미국 환경사 연구에서 보존과 보호 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산림학 연구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식 아래 기획되었다. 산림과학원에서 이 모임을 진행하며, 산림과학의 역사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발표로 군산대학교의 이종민은 미국의 산림과학, 산림행정의 역사를 개괄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산림에 대한 접근과 관리가 산림정책 대 자원-환경 정책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져왔음을 보였다. 자연보호(preservation), 자원 보전(conservation), 그리고 환경주의(environmentalism) 등의 각가지 관점들 사이에서 산림은 아름다운 경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했고, 또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의되었으며, 이렇게 산림을 바라보는 방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상황, 환경위기의 출현 등 각종 이슈와 더불어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점을 보였다. 이러한 미국 환경사 연구는 국내 산림 과학과 산림관리 행정을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좋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모임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의 김영환 연구원은 이종민의 연구에 대해 토론을 맡아, 미국 내에서도 산림이 각 지역의 자연적 특성에 따라 달리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서북미 지역(Pacific Northwest)은 번개와 같은 자연적 원인으로 인해 5~25년 주기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형(Fire Regime)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불형으로 인해 수피가 두꺼운 폰테로사 소나무(Ponderosa Pine)가 상층을, 초본류가 하층을 우점하는 임분 구조가 발달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산불을 예방하고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나무의 밀집도를 낮추는 주기적인 벌채가 중요한 관리 방식으로 도입되었다는 설명이었다. 이렇게 사회적 조건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자연적, 환경적 조건도 비교하는 것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이종민의 발표에 이어 국립산림과학원의 차성은 연구원은 산림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과나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현재 산림과학원에서 운용 중인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중심으로 과거의 산불확산예측시스템과 현재 개발 중인 관리 방식까지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사모임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비록 역사적 연구는 아니었지만, 산불 관리 측면에서 산림을 조망하면서 산림이라는 자연적 대상의 관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 (2) 2024년 5월 환경사모임

5월 환경사모임에서는 지진, 폭풍, 해일과 같은 즉각적 재난보다는 사회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나타나는 ‘느린 폭력’과 ‘느린 재난’ 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역사학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sup>5)</sup> 공해와 환경 문제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배경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정세권을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의학사 연구자인 정세권은 2010년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재난이 가정 내 높은 위생과 보건환경 기준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기준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가정 내 건강 관리를 위한 가전제품의 ‘소비’ 양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소비가진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당시 공기정화기) 제품이 증가하였고, 다양한 광고를 통해 ‘실내 공해’와 실내 공기질 관리가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6월 환경사모임

최근 환경사 연구자들이 공해와 환경 피해의 ‘누적적’ 양상에 주목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러한 누적적 피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 매립지이다. 환경사모임에서는 이러한 공간에 대해 과학기술학적, 예술적 연구를 수행하는 이소요 작가를 초청하여, ‘플라스틱퀴터, 플라스틱계’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새로운 통찰을 공유하도록 요청하였다.<sup>6)</sup> 이소요 작가에

5) 예를 들어 다음의 연구를 참고. 박진영, 『재난에 맞서는 과학』, 민음사, 2023.

6) 작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을 참조. <https://www.forkingroom.kr/journal-3/soyolee>; <https://chuin>

따르면, 경기 남부의 한 산업단지 조성 현장이 과거에는 쓰레기 매립장이었지만, 현재는 울창한 산림으로 변모하여 그 이력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2만여 제곱미터의 이 매립지는 1987년 7월부터 1992년 1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생활폐기물 약 26만 톤이 매립된 곳으로, 이러한 폐기물 매립지는 전국적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실제로 환경부는 2002년 전국의 사용 종료된 매립지 현황을 조사해 1,170곳을 목록화한 바 있다. 이소요 작가는 시추 작업을 통해 매립지 내의 쓰레기를 끌어올렸을 때, 약 40년이 지난 매립지에서도 종이가 거의 훼손되지 않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존되어 있는 모습에 놀랐으며, 또한 종이의 비중이 높았으며, 라면 봉지 등의 쓰레기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악취가 났지만, 이를 정제하여 작품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쓰레기가 별도의 채색 없이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이소요 작가는 쓰레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매립지를 단순히 폐기된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를 포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4) 7월 환경사모임

2024년 5월 1일부로 병원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이 해제되었다. 2020년 초부터 약 5년 동안 위생마스크는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마스크는 감염 예방을 위한 유일한 ‘기술적’ 도구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연구자들이 마스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여러 연구 논문이 과학사와 의학사 저널에 소개되었으며 단행본도 출판되었다.<sup>7)</sup> 위생마스크가 역사적 연구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도, 환경사적으로 중요한 방진마스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방진마스크의 역사적 연구를 처음으로 수행한 박승만을 본 연구 모임에 초청하여 관련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김준수는 ‘한강뷰’ 아파트가 성공의 지표로 여겨질 정도로 한국인의 삶에서 중요한 환경적 공간으로 자리 잡은 한강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탐구하였다. 김준수는 많은 연구자들이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통해 현재와 같은 한강의 전경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1950년대부터 한강 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계획들이 존재해 왔음을 밝혀냈다. 그는 당시 한강에 운하를 설치하려는 계획뿐만 아니라, 한강을 산업과 교통의 중심으로 활용하려는 여러 구상들이 제안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김준수는 한강이 단순히 1980년대 개발 사업의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온 상징적 공간임을 강조하였다. 한강 개발에 대한 이런 장기적 시각은 오늘날 한강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환경사 및 도시사적 관점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

#### (5) 8월 환경사모임

8월 20일, 부산대학교 성학관에서 열린 모임에서는 같은 시기 부산에서 개최된 제9회 국제해양사학회(IMHA)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Maritime History)를 계기로 교토대학교의 에릭

---

[g.tistory.com/99](http://g.tistory.com/99), (2024년 11월 4일)

7) 스미다 도모히사, 2020, “코와 입만 가리는 물건: 마스크의 역사와 인류학을 향해”, 『한국과학사학회지』 42:3, 745-759; 현재환, 2022, “일제강점기 위생 마스크의 등장과 정착”, 『의사학』 31:1, 181-220; 현재환·홍성욱 역, 『마스크 파노라마: 흑사병에서 코로나19까지, 마스크의 과학과 정치』, 문학과 지성사, 2022.

슨(Kjell Ericson)을 초청하여,<sup>8)</sup> 굴이라는 해양생물의 양식 역사를 중심으로 일본과 미국을 연결하는 환경사 연구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 연구가 한국 환경사보다는 동아시아 환경사 범주에 위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 방문연구원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던 토론토대학교의 황옥한(Yu-Han Huang)을 초청해 20세기 중반 대만에서의 흙벽돌(Soil-Cement Brick, SCB)을 활용한 자조주택(self-housing) 건설 사례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에릭슨과 황옥한의 연구는 동아시아 환경사 연구의 접점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에릭슨은 일본의 굴 양식 산업이 미국으로 확장된 역사를 다루면서, 20세기 중반 이후 산업적, 생태적 변화로 인해 일본 연안에서 굴 양식이 어려워진 뒤 한국으로 굴 양식 산업이 확대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한편, 황옥한은 대만의 자조주택 사례를 연구하며, 이와 유사한 자조주택 논의가 이승만 정권 시기 한국 내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발표들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환경사와 주거정책의 연관성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6) 9월 환경사모임

9월 환경사모임은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은 기존에 역사적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환경사모임에서 벗어나, 환경사회학과 인류학 연구자들의 시각을 통해 환경 문제를 보다 폭넓게 탐구하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진영은 2015년 이후 중국에서 해류를 타고 서해안으로 유입되는 팽생이모자반에 대해, 정부와 어촌 사회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팽생이모자반은 톱의 일종이지만, 동중국해에서 서해안으로 흘러오면 대부분 부패하거나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질긴 상태가 되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대상이었다.<sup>9)</sup> 2020년 서해안에서 수거된 팽생이모자반의 양이 5,106톤에 이를 정도로 그 양이 방대했으며, 박진영은 이 팽생이모자반의 이동을 추적하고 수거하는 기술적 대응뿐만 아니라 이를 자원화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가 병행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는 바다라는 공간에서 자원, 환경, 폐기물이 교차하며 형성하는 복잡한 정의와 관계를 살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어진 김미숙의 연구는 미나마타시에 위치한 미나마타병자료관과 미나마타병센터 두 기관이 미나마타병을 전시하는 방식의 차이를 통해 공해병과 관련된 기억의 정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미나마타시에서 운영하는 미나마타병자료관은 미나마타병을 지역 사회가 극복해 온 사례로서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정부와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온 과정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반면, 미나마타의 피해 주민들이 직접 설립한 미나마타병센터는 미나마타병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 문제임을 강조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장소였다. 이를 통해 김미숙은 공해병과 관련된 기억의 정치가 어떻게 공적인 기억과 사적인 기억의 갈등 속에서 형성되는지를 탐구하며, 환경 피해의 기억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존되고 해석되는 과정을 드러냈다. 이러한 연구는 환경문제를 다룰 때 기억과 정의의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 (7) 10월 환경사모임

10월 환경사모임은 최근 자연보존에 관한 역사적 연구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같은 주제를 지리학 연구자의 시각에서 조명해보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김지영은 천연보호지역과 국립공원 등 자

8) <https://ima-e.imweb.me/158898657>, (2024년 11월 4일)

9)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37360>, (2024년 11월 4일)

연 보존 및 보호를 위해 특정 장소가 구획되고 형성되는 과정을 역사지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해왔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자연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이 단순히 통치를 목적으로 자연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정적 산물로만 볼 수 없으며, 중앙 정부의 기획과 전략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연과학자와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김지영은 식민지 시기부터 1970년대 국립공원 설치 논의까지의 흐름을 하나의 연속적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특히 환경사모임 발표에서 김지영의 연구는 자연보호구역과 국립공원이 역사적, 사회적, 과학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공간임을 부각시키며, 자연보존에 대한 접근이 정치적 목적뿐만 아니라 생태적 가치, 과학적 필요성, 지역사회의 기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는 특정 보존구역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자연과학자들이 생태적 가치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고,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기회와 관련하여 보존구역 설정에 관여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자연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 같은 공간이 단순히 보존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국가 정책, 과학적 연구가 얽힌 복합적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김지영은 자연보존을 둘러싼 역사적 논의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환경사와 지리학의 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 3. 결론

한국 학계에서 환경이 문제적 대상으로 부상했던 1970년대 초부터 ‘새로운’ 현상인 환경문제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여겨졌을 정도로 환경이란 대상은 여러 분야의 융합적 접근을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다.<sup>10)</sup>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문제로서의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역사적 검토 대상으로서의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환경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누구에 의해서 대표되느냐 등 여러 기준과 관점이 학문 분과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분과적 시선에 국한되어서 환경사 연구가 수행되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자 했던 본 환경사모임의 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환경인문학과 과학기술학 모임에서는 총 7차례에 걸쳐 여러 분야의 연구 성과를 확인하고, 환경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기회를 가졌다. 그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자면, 첫째, 지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을 초청함으로써 학제 간 경계를 넘나드는 통찰을 제시하고,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환경 문제를 탐구할 수 있었다. 둘째, 모임 기획 당시 예상하지는 않았으나, 방진마스크, 굴, 흙벽돌, 팽생이모자반과 같은 비인간 대상들이 발표의 주요 주제로 다뤄지면서, 최근 비인간 및 동물에 대한 역사적 관심 증가와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흐름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역사비평』에서 특집으로 다루었던 ‘20세기 동아시아 농어업과 사회-생태 물질대사’와도 맞물리며, 환경사에서 비인간 주제를 탐구하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셋째, 본 환경사모임을 통해 각각의 연구자들은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및 글로벌 시각에서 환경사를 조망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에릭슨과 황옥한의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굴 양식이나 자조주택 사례에서 다뤄진 대상들은 각국의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초국적 맥락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환경사 연구자들 간의 교류 모델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던 본 환경사모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본 모임이 추구했던 바를 달성하는 데 있

10) “공해문제연구위 발족”, 『조선일보』, 1971년 8월 28일, 5면.

어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작업이기도 했다. 환경인문학과 과학기술학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연구자들 간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모임의 지향점인 ‘더욱 열린 모임’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매월 모임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하여 평균 10-15명의 연구자가 참여해 왔지만, 이는 환경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를 촉진하려는 모임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모임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연구 발표 외에도 환경 관련 워크숍이나 패널 토론, 현장 답사와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함으로써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환경인문학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모임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형태의 연구 교류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기적인 연구 발표회는 학문적 교류를 위한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풀씨 연구회와 같은 재원을 통한 재정적 지원 없이는 이러한 형태를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재정적인 문제는 모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보다 안정적인 후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모임의 지속성과 포괄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 또는 후원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더욱 폭넓은 학문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세미나 주제를 환경인문학의 특정 이슈로 좁히지 않고, 다양한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다 대중적인 주제나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특별 세션을 기획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스미다 도모히사, 2020, “코와 입만 가리는 물건: 마스크의 역사와 인류학을 향해”, 『한국과학사학회지』 42:3, 745-759.
- 박진영, 『재난에 맞서는 과학』, 민음사, 2023.
- 원주영, 2023, “환경을 위한 개발? - 1970년대 내수면 개발과 한국자연보존협회의 자연보존 운동”, 『역사비평』 145, 154-180.
- 원주영·현재환, 2024, “『자연보존』을 통해 본 1970년대 자연보전 논의의 변화”, 『생태환경과 역사』 12, 73-115.
- 현재환, 2022, “일제강점기 위생 마스크의 등장과 정착”, 『의사학』 31:1, 181-220.
- 현재환·홍성욱 역, 『마스크 파노라마: 흑사병에서 코로나19까지, 마스크의 과학과 정치』, 문학과 지성사, 2022.
- Jaehwan Hyun, 2023, “Negotiating Conservation and Competition: National Parks and ‘Victory-over-communism’ Diplomacy in South Korea,”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Sep 5, 1-17.